

제11권 1호 통권 제19호 [재발간호]

www.kagp.or.kr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인: 연병길 / 편집인: 오강섭 /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서울 강동구 길동 445 한림대학 강동성심병원 5층 정신과 외래 / TEL : 02-2224-2268 / FAX : 02-487-0544
발행일: 2005년 11월 어일 / 인쇄인: 김영길 / 등록번호: 제 2-124 호 / 제 작: 중앙문화사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15 / TEL : 02-717-5511 FAX : 02-717-5515

Contents

- 02 | 권두언
- 03 |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진행 소식
- 05 | 학술 활동 소식
- 11 | 해외학회 참관기
- 12 | 학술대회 안내
- 15 | 회원 동정
- 16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Vol. 11, No. 1 Autumn 2004가을호

| 권두언 |

대노정 뉴스레터

학회 회보를 재발간하며



卷頭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보는 1994년 10월에 창간되어 2003년 11월까지 연 2~4회 발간되어 오면서 새로운 학회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학회 회원들의 동정을 알리고 학회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4년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회의 모든 역량을 국제학회 준비에 결집시키기 위하여 회보 발간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이제 국제학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1년간에 걸쳐 준비를 한 끝에 새롭게 학회 회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창립 10주년을 넘어 새로운 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노인정신의학회에 오병훈, 서국희 두 분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우리 학회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많은 연제를 발표하고 외국의 유명 학술지에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바뀐 국제노인정신의학회 회장단에서는 Asia Pacific Initiatives를 조직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노인정신의학자들의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가 2013년에 열릴 세계노년학회를 유치하게 되어 그 준비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년 9월 박종한 학회 고문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노년학회, 노화학회, 노인병학회, 노인정신의학회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인과학술단체연합회의 각종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노인수발보험법안도 입법예고 되어 이에 대한 학회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연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의 정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렇듯 중대한 학회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우리 학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에게 학회 활동을 내외에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매체로는 홈페이지와 학회 회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회 회보는 홈페이지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간되는 학회 회보는 풍부한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상 동정이나 학회에 대한 비판과 조언, 노인정신의학과 관련된 자그마한 소식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홍보 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정성껏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학회 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 주신 오강섭 홍보 이사님을 비롯하여 홍보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1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연 병 길

|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진행 소식 |

아래 글은 2005년 11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에게 발송된 내용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점점 깊어 갑니다.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어울려 한껏 계절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에 대해 회원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2001년 1월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 규정을 제정하여 2004년 7월 9개의 내과 세부전문의를 인증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수부외과를 인증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부전문의 제도의 도입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가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 사회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충격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 사회로 전환되면서 환자 질병 양태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를 두어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및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인 의료와 복지 문제를 대처해 나갈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향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는 노인의 건강과 질병을 주 전공으로 하는 검증된 전문가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접 임상분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학을 전공한 가정의학 의사들과 내과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인병전문인정’을 만들어 2005년 제5차 시험을 실시하였고, 매년 약 500명정도 응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임상노인의 학회에서도 ‘노인 의학 전문 인정’라는 명칭으로 2005년에 제 5회 자격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일부 회원도 이러한 단체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증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신건강이라는 분야가 기존의 법정전문 진료 과목인 신경정신학과 차별되는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정신과의사는 노인 특유의 문

제를 이해하여야 함은 물론, 신경심리학적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등에 익숙하고, 노인들에게 흔한 내과적 신경과적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치료와 재가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향후의 의료-복지 서비스 체계를 자문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신경정신의학 전문의 수련 과정만으로는 노인들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터득하는 데는 다소 미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인 환자들을 적절히 진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화되고 세분화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가 도입될 때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는 노인정신의학을 세부 전공하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제도가 확정되고 나면 인증된 수련 기관에서 적절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노인정신의학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 단계에서는 이미 세부전문을 시행하고 있는 학회처럼 기존의 임상 경험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게는 그 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인 과도 기간 동안은 대한신경정신학회 정회원들에게 특정 시간의 보수 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술기를 익히고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격시험을 거쳐서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지원 자격

- 가. (신경)정신과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5년 이상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한 자.
- 나. 노인정신의학 영역에서 5년 이상 임상경험을 한 자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강좌나 학술행사의 이수평점을 60점 이상 취득한 자.
- 다.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강좌나 학술행사의 이수평점을 100점 이상 취득한 자.
- 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수련을 1년 이상 마친 자.

(뒷면 계속)

|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진행 소식 |

즉 현재는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 경험이 5년 이상인 분은 모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한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수 평점 60점을 취득하시면
지원 자격이 있고, 아직 5년이 안되신 분들은 100점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2003년부터 CME course, 노인정신건강 workshop,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정신과 의사들이 노인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약 9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중 많은 분들이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1월 11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리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세부전문의 인정점수 15점), 11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노인과 학학술단체연합회 세미나(인정점수 15점)와 12월 10일과 11일에 부산에서 노인정신건강 workshop(인정점수 30점)을 시행할 예정이며, 2006년 2월에 서울에서 workshop(인정점수 30점)을 그리고 4월에는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인정점수 15점)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허약 노인들과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려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환자를 위한 포괄 수가제의 장기요양수가를 개발 중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치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제 운용에서 세부전문의에 준하는 전문가에게 환자 및 제도 운용의 지도관리를 맡기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 치매 요양기관 운용 자격 요건을 정할 때 초기에는 정신과가 제외되어 많은 회원들이 당혹감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제도가 결정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대적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에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의 도입에 대한 가장 커다란 우려가 자칫 진료의 어떤 분야를 독점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진료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며 노인정신장애자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가능하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참여하여 노인정신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신과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세부전문의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병원의 선전, 환자 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의 상업적인 목적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하고, 학문적으로 세부 전문분야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 학회와 연계하여 제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공신력 있는 수련프로그램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회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11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연 병 길

| 학술 활동 소식 |

2004 World Congress of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개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회는 지난 2004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500여명의 국내외 노인정신의학자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in Rapidly Aging Societies였습니다.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국제노인정

신의학회 아태지역 학술대회에 참가한 27개국의 노인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노인관련 문제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개인과 가족과 사회, 국가, 전문가 집단이 노인정신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강령인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향후 아태지역 내 공동지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학술 활동 소식 |

서울 노인 정신건강 선언문

2004년 9월 8일 서울에 모인 노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도전을 극복하고 건강 고령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고령사회의 도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은 많은 노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유지되던 노인인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체계는 붕괴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노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건강 고령사회의 비전

우리가 꿈꾸는 건강 고령사회는

1. 모든 노인이 치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이다.
2. 모든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다.
3. 모든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이다.

●● 건강 고령사회를 위한 행동강령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각 개인, 가정과 사회, 전문가 그룹과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촉구한다.

■ 개인

- 노년은 곧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한다.
-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의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한다.

■ 노인들은

- 생활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
-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활동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계속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 가정과 사회

-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치매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에 치료될 수 있게 한다.
- 동양의 전통적 가치인 효와 경로 사상을 되살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전문가 그룹

- 개인과 가정, 사회가 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한다.
-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 치매와 우울증 등 노인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의 심각성을 널리 계몽한다.
- 국가에 대하여 노인정신질환 치료 및 노인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제시한다.
- 기억력 증진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한다.
-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며 치매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지역 사회 내 시스템 구축에 힘쓴다.
- 치매 발병의 위험성이 높은 경도 인지장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 국 가

- 노인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 노후의 소외와 무료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활동을 제공한다.
-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과 질병이환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

| 학술 활동 소식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2차 workshop 성공리에 개최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2차 WORKSHOP -

- 일 시 2004. 10. 30(토) ~ 10. 31(일)
- 장 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14:00~14:10 개회사 이사장 박종한

제 1 부 노년기에 흔한 신체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

좌장 : 윤진상 (전남의대)

14:10~14:35	신체 검진과 주요 임상병리검사결과의 판독	조비룡 (서울의대)
14:35~15:00	노인환자의 포괄적 평가	노용균 (한림의대)
15:00~15:25	노인환자에서 흔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지침	이영수 (울산의대)
15:25~15:50	노인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과 그 관리 지침	

제 2 부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체계

좌장 : 함 웅 (계요병원)

16:30~16:55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in clinical setting	오병훈 (연세의대)
18:45~17:10	주요 선진국의 노인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김도관 (성균관의대)
17:10~17:40	한국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장병원 (보건복지부)

10월 31일 (일)

제 3 부 노인정신의학 영역의 주요 질병 I

좌장 : 정인과 (고려의대)

10:00~10:25	치매 : 치매환자의 평가 (증례설명)	김희철 (계명의대)
10:25~10:50	치매 : 주요원인질환	
	3) 루이소체성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	이동영 (서울의대)
10:50~11:15	치매 : 주요원인질환	
	4) 전두엽성 치매	한일우 (효자병원)
11:15~11:40	치매 : 뇌졸중 환자의 치료지침	김경문 (성균관의대)
11:40~12:00	Q & A	
12:00~13:00	점심	

제 4 부 노인정신의학 영역의 주요 질병 II

좌장 : 기백석 (중앙의대)

13:00~13:25	AAMI와 MCI	전진숙 (고신의대)
13:25~13:50	노년기 우울증 : 병태생리와 평가	김성환 (동아의대)
13:50~14:15	노년기 우울증 : 치료	김성윤 (울산의대)
14:15~14:30	Q & A	

제 5 부 노인정신의학 영역의 주요질병 III

좌장 : 김영돈 (대전선병원)

14:50 ~ 15:15	노년기 사별 (Bereavement) 및 적응장애	이동우 (인제의대)
15:15 ~ 15:40	노년기 불안 장애	김재민 (전남의대)
15:40 ~ 16:05	노년기 알코올 및 물질관련 장애	주은정 (을지의대)
16:05 ~ 16:30	Q & A	

| 학술 활동 소식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3차 workshop 성공리에 개최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3차 WORKSHOP -

- 일 시 2005. 07. 16.(토) 10:00 ~ 17:00
-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장 소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2층대강당
- 후 원 한국안센

“노년기에 흔한 신경학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

사회: 김도관 (학술이사)

제 1 부 노년기 뇌졸중에 대한 이해와 대처

좌장 : 박종한 (대구가톨릭대)
김종성 (울산대)
허지희 (연세대)
정진상 (성균관대)
김재민 (전남대)

- 10:10 ~ 10:35 뇌졸중 : 증상과 진단
- 10:35 ~ 11:00 뇌졸중 : 내과적 치료
- 11:00 ~ 11:25 뇌졸중 : 위험인자와 예방
- 11:25 ~ 11:50 뇌졸중 : 흔히 동반되는 정신장애
- 11:50 ~ 12:10 Q & A
- 12:10 ~ 13:20 Lunch Break

제 2 부 노년기 운동장애 환자에 대한 이해와 대처

좌장 : 연병길 (이사장)
전범석 (서울대)
이광수 (가톨릭대)
이동영 (서울대)

- 13:20 ~ 13:45 운동장애 : 신경학적 이상소견의 평가
- 13:45 ~ 14:10 운동장애 : 내과적 치료지침
- 14:10 ~ 14:35 운동장애 : 흔히 동반되는 정신장애
- 14:35 ~ 14:50 Q & A

제 3 부 신경학적 진찰 수기에 대한 이해

좌장 : 이정호 (인제대)
김승민 (연세대)
박건우 (고려대)
나정호 (인하대)
김혜란 (성균관대)

- 14:50 ~ 15:15 말초신경장애 환자의 평가
- 15:15 ~ 15:40 섬망 환자의 평가
- 15:40 ~ 16:05 신경학적 진찰을 통한 이상소견의 위치 결정
- 16:05 ~ 16:40 신경학적 진찰 술기
- 16:40 ~ 17:00 Q & A
- 13:25 ~ 13:50 노년기 우울증 : 병태생리와 평가
- 13:50 ~ 14:15 노년기 우울증 : 치료
- 14:15 ~ 14:30 Q & A

제 5 부 노인정신의학 영역의 주요질병 III

좌장 : 김영돈 (대전선병원)
이동우 (인제대)
김재민 (전남대)
주은정 (울지대)

- 14:50 ~ 15:15 노년기 사별 (Bereavement) 및 적응장애
- 15:15 ~ 15:40 노년기 불안 장애
- 15:40 ~ 16:05 노년기 알코올 및 물질관련 장애
- 16:05 ~ 16:30 Q & A

| 학술 활동 소식 |

- 2005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연수교육 -

• 일 시 2005. 4. 15. (금) 10:00 ~ 12:3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치매 주요 원인질환들에 대한 최신 지견”

10:00 ~ 10:30	Alzheimer's Disease	우성일 (순천향의대)
10:30 ~ 11:00	Lewy Body Disease & PDD	김재민 (전남의대)
11:00 ~ 11:15	Q & A	
11:15 ~ 11:45	Frontotemporal Dementia	한일우 (효자병원)
11:45 ~ 12:15	Vascular Dementia	이재홍 (울산의대 아산병원)
12:15 ~ 12:30	Q & A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

• 일 시 2005. 4. 15. (금) 14:00 ~ 18:0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14:00 ~ 인사말 연병길 (이사장)

“The Interface of Psychotic Symptoms in the Elderly”

제1 부

좌장 : 조맹제 (서울의대)

14:00 ~ 14:25	Epidemiology and diagnostic assessment for the elderly patients with psychotic symptoms	서국희 (한림의대)
14:25 ~ 14:50	Early onset schizophrenia in late-life	김철웅 (인하의대)
14:50 ~ 15:15	Late onset schizophrenia	신영민 (서울의료원)
15:15 ~ 15:40	Neural substrate of psychotic symptoms	권준수 (서울의대)
15:40 ~ 16:00	Q & A	
16:00 ~ 16:20	Coffee break	

제2 부

좌장 : 정인파 (고려의대)

16:20 ~ 16:45	Psychotic symptoms in dementia	김희철 (계명의대)
16:45 ~ 17:10	Psychotic symptoms in geriatric depression	김도훈 (한림의대)
17:10 ~ 17:35	Psychotic symptoms in delirium	한명일 (노송전주병원)
17:35 ~ 18:00	Practical strategies for using neuroleptics for the elderly patients with psychotic symptoms	함봉진 (서울의대)
18:00 ~ 18:20	Q & A	

| 학술 활동 소식 |

제7회 고령사회포럼

치매, 이제는 이길 수 있다 ; 치매의 현황과 문제점

- 주 최 :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
-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19: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후 원 : 보건복지부, KT&G 복지재단

프 로 그 램

치매,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치매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 김태현 교수(성신여대)

- 19:00 개 회
- 18:00 인사말 고창순 고령사회포럼위원장
- 19:10 주제발표 연병길 교수(한림대학 의과대학)
- 19:50 토론발표 I 오병훈 교수(연세대학 의과대학)
- 20:10 토론발표 II 권중돈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30 Break Time
- 20:40 질의응답과 토론
- 21:20 폐 회

GEROPSYCHIATRY SEMINAR SERIES

Coordinator : 김 도 관

- 시 간 : 2004. 9. 17~12. 24 (금)오후 4:30~6:00
- 장 소 : 삼성서울병원 별관 6층 회의실
- 대 상 : 노인정신의학전임의, 연구원, 대학원 학생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김도관 회원은 노인정신의학 전임의, 대학원생, 연구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신의학 세미나 시리즈'를 매년 개최하고 계십니다.

도서안내



교과서인 '노인정신의학' 개정판이 2004년 8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인접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Ebixa
memantine

“새로운 기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한국lundbeck 주식회사

제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Tel. 02)431-6600 Fax. 02)431-6886
www.lundbeck.co.kr

 **It's Nice**

Allosteric Nicotinic Modulator
Reminyl
GALANTAMINE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문의들이 치매치료를 위해
아리셉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Human Health Care Company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향타워 12층
Tel. 02)3451-5500 Fax. 02)3451-5599
www.aricept.co.kr

| 해외학회 참관기 |

제12차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참관기

| 이준영 (보라매병원) |

제 12차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학회는 2005년 9.20일에서 9.24일 동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유럽 방문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회 내용을 떠나서 설레는 마음이 조금 있었다. 또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임상심리 선생님이 스톡홀름이 북유럽의 피렌체 같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렌체도 가보지 못했음) 더 기대하였을 수도 있다. 스웨덴에 가기 전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1)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2) 일인당 GNP가 25000달러 정도로 세계 12위에 이르는 부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하며 또한 학회도 풍요할 것이다 등이었다.

하지만 스톡홀름에 내려서 처음 느낌은 길거리에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우리 나라 늦가을 날씨처럼 쌀쌀했기 때문에 물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길거리에 파킨슨병 노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스

웨덴은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 혜택이 주로 노인이나 병든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젊어서는 일하고 세금내느라 힘들지만, 늙거나 병들어서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듬뿍 주어지는 나라인 것이다. 노인에게는 천국인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막혀오는 것이 있었다.

학회는 커피, 과일, 과자 약간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없었다. 사람들이 비싼 물가 때문인지 검소하여 식도락 문화도 발달해 있지 않았다. 식사는 샌드위치도 대략 150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고, 버스비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원 돈으로 비쌌다. 사람 많고, 공공 요금이 싼, 음식이 풍부한, 병원비도 싼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천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의 얼큰한 음식들이 많이 그리웠는데 노인정신의학회 연 이사장님께서 스톡홀름에 있는 유일한 한국식당에서 저녁을 사주신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학회 둘째 날 스웨덴 실비아 왕비가 학회에 방문하였고, 저녁에 스웨덴 시청에 학회 참석한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리셉션을 하였다. 스웨덴 시청은 황금의 방도 있는 등 화려하며 노벨상 수상식 때 파티가 열리는 곳이라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스웨덴 왕비는 치매 노인에 대한 애정이 많았고 내가 알아들은 바로는 명예 정신과 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저녁 리셉션이 가능했었던 것 같다. 우리도 대통령을 명예 정신과 의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학회 내용 중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문맹 노인의 치매 평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중국, 인도 등 문맹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면서, 문맹 노인을 어떻게 치매 평가를 해야할지가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물어보는 설문에서도 10%만 정답을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문맹이 29%인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문맹 노인의 인지기능 평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10/66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소망하였다.



| 학술대회 안내 |

2005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 일 시 | 2005년 11월 11일 (금) 10:00 ~ 18:00
- | 장 소 |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 참 가 비 | 정회원/전공의/군전문의 20,000원 비회원/전문의 30,000원, 평생회원 면제, 중식제공
- | 사전등록 | www.kagp.or.kr (2005년 11월 5일 마감)
우리는행 1005-380-213455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 연수평점 | 대한의협평점 5점,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이수평점 15점
- | 주 최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 후 원 | 한국안센, 한국에자이, 한국룬드벡, 한국화이자, 사노파-아벤티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GSK

초대의 말씀

저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올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추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전체 주제는 '노인의 정동 증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으로 인하여 정동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동 증상의 원인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으며 그 치료법도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노인의 정동 증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노년기 정동증상을 지닌 환자에 대한 진료지침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전의 연수교육에서는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장기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주요 문제를 다루어 노년기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문제는 노인요양(수발)보장법의 제정과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 제도일 것입니다. 노인요양보장법은 최근 명칭을 노인수발보장법으로 개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의 변화가 의미하듯이 이러한 시도는 노인 요양 보장제도에서 보건·의료적인 부분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 시점도 다소 늦추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축소되거나 제공 시점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

한노인정신의학회는 유관 단체들과 연합하여 적절히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신건강세부전문의 제도는 9월에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서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 상임 대의원회를 거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조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원래의 의도처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정식 세부전문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전문의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아직도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저희 임원진들이 해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느끼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전문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연 병 길

| 학술대회 안내 |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2차 WORKSHOP -

- 일 시 2005. 11. 11. (금) 10:00 ~ 12:3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장기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주요 문제들”

		사회 : 이동우 (기획이사)
		좌장 : 정한용 (순천향대)
10:00~10:30	Management of depressive breakthrough during long-term treatment	권의정 (용인정신병원)
10:30~11:00	Managing discontinuation issues	유승호 (건국대)
11:00~11:15	Q & A	
11:15~11:45	Frequent adverse events during long-term antidepressant treatment	조성진 (가천대)
11:45~12:15	The role of psychotherapy in long-term treatment	박용천 (한양대)
12:15~12:30	Q & A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

- 일 시 2005. 11. 11. (금) 13:20 ~ 18:00
- 장 소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The Interface of Affective Symptoms in the Elderly”

		사회 : 김도관 (학술이사)
		연병길 (이사장)
13:20~13:30	인사말	
제 1 부		좌장 : 이정호 (인제대의대)
13:30~13:55	Affective symptoms in the elderly: Psychopathology	배재남 (인하대)
13:55~14:20	Affective symptoms in the elderly: Epidemiology	홍진표 (울산대)
14:20~14:45	Vascular depression and depression	김도관 (성균관대)
14:45~15:10	Suicide in late-life: An epidemic	이동우 (인제대)
15:10~15:30	Q & A	
15:30~15:50	Coffee break	
제 2 부		좌장 : 정인과 (고려의대)
15:50~16:15	Affective symptoms and dementia in late-life	김기웅 (서울대)
16:15~16:40	Mania in late-life	정한용 (순천향대)
16:40~17:05	Interface of cognitive and affective symptoms: Neural substrate	함병주 (한림대)
17:05~17:30	Practice guideline of the management for the elderly patients with affective symptoms	김영훈 (인제대)
17:30~17:50	Q & A	
18:00~18:30	정기 총회	

| 학술대회 안내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2005년 추계연합학술대회

- | 일 시 | 2005. 11. 19. (토) 10:00 ~ 18:00
 |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 최 |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 ※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술심포지엄이 열립니다.
 ※ 심포지엄의 참가자는 노인정신건강 세부전문의 평점 15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 회원 동정 |

●● 광동일 창립회장 및 현 학회 고문

광동일 창립회장 및 현 고문께서 2005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그 동안 노인정신의학회 노인 복지 향상에 애쓰신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오병훈 노인정신의학회 부 이사장

- IPA Board (2004-2008) 에 선임되었으며, IPA-Membership Expansion의 대사로 위촉됨.
- 2005년도 ICGP, Pittsburg, USA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노인성 치매와 노인성 수면장애 심포지엄 연자로 초청받았음.
- 2006년도 ICGP, Hiroshima, Japan의 조직위원
- 2005년도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회회의 운영위원 및 개인회원으로 위촉
- 2005년도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위원회-실무소위원회 위원장
- 2005년도 3월 1일부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정신건강 병원장으로 임명됨.

- 2005년 4월5일 - 4월8일까지 뉴질랜드의 Rotorua에서 개최된 "IPA-Joint Australian Regional Meeting 2005"에서 4월6일 구연 발표 (Aged mental health services in South Korea)
- 2005년 6월 26일 - 6월 30일까지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The 18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 구연 발표 (Psychogeriatric education in South Korea)

●● 기백석 회원

- 2005년부터 대한 우울조울병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정인과 회원

- 2005년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 전진숙 간행이사

- 2005년 4월 8일 Rotorua에서 개최된 "IPA-Joint Australian

| 회원 동정 |

Regional Meeting 2005에서 구연 (Suicide in the Korean elderly)

- 2005년 6월 29일 브라질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The 18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구연 (Sexual problems of dementia patients in South Korea)

●● 최중혁 회원

1. 2006-2007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2005년 (10.22-10.2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정신약물학회 (ECNP)에 참석하고 포스터 발표하였습니다.
3. 노인병학회 치매연구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 이민수 회원

현재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세계생물정신의학회 (WFSBP)의 임원진에 선출되어 Associate Treasur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국희 회원

2004년부터 1년간 영국 런던대학교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장기 연수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노인병학회 치매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노인의 행동 및 정신장애에 대한 최신 지견을 학계의 관련 연자를 모셔서 듣는 '월요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저녁 7시
- 장 소 : 한강성심병원 노인병센터 10층 강당
- 연락처 : suhgh@chol.com

●● 한창수 회원

- 호주 멜버른 대학 WHO CC의 Postgraduate Overseas Specialist Training Fellowship에 선발되어 노인병원인 St. George Hospital (Prof. Edmond Chiu, Prof. David Ames)에서 2005년 5월 한 달 간 단기연수를 하였습니다.
- 2005년 9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WPA 학술 대회에 펠로우로 선발되어 심포지엄 및 YPC (Young Psychiatrists Council)에 참석하였으며, "Depressive symptoms and cognitive decline of the Old"의 주제로 구연 발표하였습니다.

●● 유승호 회원

- 2004년부터 1년간 영국 런던대학교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Prof. C. Katona)에서 노인정신의학 연수를 하였습니다.
- 2005년 새롭게 확장 개원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유재학, 박두홍

교수와 근무하고 있으며, 치매 클리닉을 개설하여 왕성한 진료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우, 이준영, 이강준, 유승호, 한창수 회원은 2005년 10월부터 서울시 정신보건 지원단의 노인정신보건 분야 Working Group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신의학 논문 투고 안내

1. 투고규정의 일반 원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투고규정에 준합니다.
2. 투고자격 : 본 학회 논문과 편집위원회에서 의뢰되었거나 인정된 논문으로 합니다.
3. 원고의 종류 : 특집, 종설, 원저, 임상단보, 증례보고, 서평 등입니다.
4.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습니다.
5.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행하며, 원고의 마감은 4월 말일(6월분)과 10월 말일(12월분)까지입니다.

• 논문접수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노인정신의학" 편집위원장 전진숙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경정신과

• 전화 : 051-990-5070(외래), 990-9245(교수연구실)

• 전송 : 051-241-5069(교수연구실)

• E-mail : cheonjs@mail.kosin.ac.kr

• 주의사항 : 원본 1부와 디스켓, 사본 2부를 논문게재동의서(회보에 수록)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자우편으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논문의 양식 등 기타 사항은 '노인정신의학' 및 홈페이지 (<http://www.kag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회 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창욱 총무이사 (E-mail : jihan@catholic.ac.kr Tel:590-2789)에게 보내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입회비 : 2만원 • 연회비 : 3만원 • 평생회원 회비 : 50만원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80-213455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처

137-7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정신과 이창욱 (총무이사)

• 팩스 : 02-536-8744

김태석 (총무간사)

• E-mail : bluenote@catholic.ac.kr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학회직위	성명	전화	팩스	E-mail
이사장	연병길	02-2224-2266	02-487-0544	knpa@hallym.or.kr
고문	곽동일	051-601-7700		
고문	유계준	02-323-9197		kjyoo36@hanmail.net
고문	이정호	02-936-8069		
고문	박종한	053-650-4785	053-623-1694	jpark@cataegu.ac.kr
고문	이형영	062-220-6146	062-225-2351	hylee@chonnam.ac.kr
부이사장	오병훈	031-797-5745	031-763-5745	drobh@chollian.net
부이사장	기백석	02-2260-2258	02-2279-8474	cauhpkbs@cau.ac.kr
차기이사장	정인과	02-818-6139	02-852-1937	
총무이사	이창욱	02-590-2789	02-594-3870	jihan@catholic.ac.kr
학술이사	김도관	02-3410-3588	02-3410-0050	paulkim@smc.samsung.co.kr
기획이사	이동우	02-950-1990 (교704)		dwlee@sanggyepaik.ac.kr
교육이사	정한용	032-621-5232	032-621-5018	hanyjung@schbc.ac.kr
홍보이사	오강섭	02-2001-2214	02-2001-2211	kangseob.oh@samsung.com
국제이사	김성윤	02-3010-3417	02-485-8381	sykim@amc.seoul.kr
간행이사	전진숙	051-990-5070	051-241-5069	cheonjs@mail.kosin.ac.kr
보험이사	장안기	02-2204-0104	02-458-0731	changmh@hananet.net
무임소이사	정은기	02-2204-0101	02-3436-0895	ekchg@unitel.co.kr
감사	윤진상	062-220-6146	062-225-2351	jsyoon@chonnam.ac.kr
감사	이민수	02-920-5815	02-923-3507	leeminso@korea.ac.kr
평이사	강홍조	043-213-7123 (교215)		dr_hckang@yahoo.co.kr
평이사	김도훈	033-252-9970 (교205)		dohkim@hallym.ac.kr
평이사	김영훈	051-890-6190	051-894-2532	insykhkim@ijnk.inje.ac.kr
평이사	김희철	053-250-7822	053-250-7810	mdhck@dmisc.or.kr
평이사	서국희	02-2639-5460	02-677-9095	suhgh@chollian.net
평이사	신영민	02-554-9011	02-554-9808	narae@kangnamhosp.or.kr
평이사	이철	02-590-2722	02-594-3870	cle512@catholic.ac.kr
평이사	조맹제	02-760-3155	02-744-7241	mjcho@snu.ac.kr
평이사	함웅	031-455-3333 (교510)	031-452-4110	hanm405@chollian.net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공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수렴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홍보위원회에서 검토후 게재하겠습니다.

- 보내실곳 : E-mail :maumon@nate.com(홍보위원 정란승)
 - ▶ 홍보위원장 : 오강섭(성균관대의대, 강북삼성병원)
 - ▶ 홍보간사 : 한창수(고려의대)
 - ▶ 홍보위원 : 백상빈(강릉이산병원) 정란승(서울지방병무청)